

紀聞叢話의 前代文獻 受容樣相

— 『紀聞叢話』 1권 筆記·稗說 수용을 중심으로

金 垞 亨*

차 례

- | | |
|---------------------|-------------------------|
| 1. 들어가는 말 | 3. 紀聞叢話의 前代文獻 受容의 史的 意味 |
| 2. 紀聞叢話의 筆記·稗說 受容樣相 | 4. 맺는 말 |

1. 들어가는 말

紀聞叢話系에 놓이는 溪西雜錄 계열, 紀聞叢話 계열, 그리고 溪西野譚 계열은 야담의 사적 전개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분야이다.¹⁾ 야담의 본격적인 장을 연 야담집이 盧命欽(1713~1775)의 『東稗洛誦』이라면,²⁾ 야담의 전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기문총화계이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기문총화계에 속하는 작품집은 50종이 있으며,³⁾ 기문총화계의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1) 기문총화계에 대한 용어, 범주, 유전 양상은 김상조의 「계서야담계 연구」(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1)와 김준형의 「기문총화계의 문헌학적 연구」(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7)를 참조할 것.
- 2) 임완혁, 「문헌전승에 의한 야담의 변모양상」,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7.
임형택, 「동패략송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23집, 한국한문학회, 1999.
- 3) 김준형은 앞의 논문에서 48종이 있다고 했으나,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에 2권 2책

개별 작품을 반 이상 수용하고 있는 야담집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⁴⁾ 때문에 야담사에서 기문총화계에 대해 새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기문총화계 중에서도 특히 '기문총화 계열' 30종의 이본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들 이본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 『기문총화』는 3권 3책의 형태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2권과 3권은 『계서잡록』을 중심으로 전대 야담집을 수용한 것이며, 1권은 전대의 다양한 『雜錄』에서 발췌한 필기류이다. 즉 원 『기문총화』는 1권에는 필기류가, 2권과 3권에는 야담이 수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연구자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기문총화』는 연세대 4권 4책본이다.⁵⁾ 이 중 4권은 1·2·3권과는 달리 전대 문헌을 수용하면서 1인칭 대명사(余나 품 등)를 그대로 노출시키기도 하고, 人定記述 부분이 축소되는 경향이 많다. 전대 문헌을 수용하는 데에도 4권은 『梅翁閑錄』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1·2·3권과는 사뭇 이질적이다. 따라서 연세대본 4권은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⁶⁾

『기문총화』⁷⁾ 1권에는 총 183편의 개별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116편은 작품의 출처가 드러나 있다. 116편 외에 나머지 작품 대부분도 또한 전대 문헌에서 수용을 하였지만 그 출처를 밝히고 있지 않았을 뿐이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과연 183편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전대 문헌

으로 존재하는 『雜同散』과 일본 경도대 하합문고 『계서야담』도 또한 이 계통에 속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2종을 추가한다. 정명기, 「야담 연구에서의 자료의 문제」, 한국고소설학회 발표 요지문, 1999. 6. 서강대.

- 4) 그 대표적인 야담집으로 『靑野談錄』을 들 수 있다. 『청야담수』에 관해서는 정명기의 「청야담수의 원천과 변이양상 연구」(『조선학보』 170, 조선학회, 1999)를 참조할 것. 이 외에 『東廂記纂』 등과 같은 활자본 야담집들도 그 중심점은 기문총화계에 있음을 부기해 둔다.
- 5) 정명기에 의해 영인 소개된 『기문총화』(『한국야담자료집성』 6권, 계명문화사, 1987)와 김동욱에 의해 완역된 『국역 기문총화』 전5권(아세아문화사, 1996~1999)은 모두 연세대 4권 4책본이다.
- 6) 김준형, 앞의 논문, 1997. 29~33쪽.
- 7) 이 글에서 『기문총화』라 함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연세대 4책본 『紀聞叢話』를 의미한다.

을 수용하고 있는가? 전대 문헌을 수용하는 방법은 어떠한가?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로는 김상조의 논의가 있다.⁸⁾ 김상조는 ‘계서야담계’가 전대 문헌을 수용하는 양상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즉 필기·패설의 수용, 전대 야담의 단순 전제, 전대 야담의 변개 전제가 그것이다. 이 중 필자의 논의와 관련을 맺는 부분은 첫째, 곧 필기·패설의 수용에 있다. 김상조는 이 부분에 대해서 原典 이야기의 일부를 수용하는 방식과 원전 이야기에의 첨가 수용하는 양식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상조는 『기문총화』와 『기문총화』에 영향을 준 원전을 일부만 추려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오류가 발견된다. 필자는 김상조의 논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문총화』에서 전대 문헌을 수용하는 양상과 그 의미를 밝혀보기로 한다.

2. 紀聞叢話의 筆記·稗說 受容樣相

(1) 필기·패설 수용의 실재

『기문총화』의 필기·패설 수용 양상을 밝히기에 앞서 도표를 제시하여 논의의 편의를 구하기로 한다.

	전대문헌 목록	기문총화 1권에 출전이 명기된 이야기	기문총화 1권에는 출전이 명기되지 않았으나, 전대의 문헌에서 발췌한 이야기	합계
1	遺閑雜錄		124.	1
2	公私見聞錄	11, 25, 78, 88, 109, 132, 136, 140.	7, 8, 14, 15, 79, 80, 89, 90, 110, 119.	18
3	菊堂俳語	27, 46, 53, 59, 60, 72, 156.	39.	8

8) 김상조, 「계서야담계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1.

4 한국문학논총 제 26 집

	전대문헌 목록	기문총화 1권에 출전이 명기된 이야기	기문총화 1권에는 출전이 명기되지 않았으나, 전대의 문헌에서 발췌한 이야기	합계
4	寄齋雜記	5, 37, 51, 100, 104, 117, 118, 138.	3, *130, 145.	11
5	東閣雜記	23, 31, 128.	*139.	4
6	東人詩話	73.		1
7	白雲小說		*47.	1
8	夢芸雜記(?)	148.		1
9	補閑集	159.		1
10	丙辰丁巳錄		*18.	1
11	涪溪記聞	101.	55.	2
12	思齋雜言	34, 96, 157.	68, 106.	5
13	石崖雜記	151.		1
14	醵園瓊錄	142.	1, 22.	3
15	續古今笑叢(?)	70.		1
16	松溪漫錄	*47.		0
17	松窩雜記	62, 105.	107.	3
18	水村漫錄		38.	1
19	於于野談	19, 36, 43, 54, 64, 71, 75, 77, 85, 93, 98, 120, 141.	10, 66, 69, 121, 150.	18
20	五山說林	2, 20, 99.		3
21	懶齋叢話	92, 95, 116, 123, 144, 152, 153.	*21, 111, *122.	10
22	龍泉談寂記	33, 83.		2
23	月汀漫筆	131.		1
24	紫海筆談	102.		1
25	蠶湖詩話	112.	*12.	2
26	終南雜識	154.		1
27	竹窓閑話	4, 87.	86.	3
28	芝峯類說	9, 32, 35, 44, 52, 53, *55, 56, 57.	6.	10
29	靑樓別談	*61.		0
30	靑坡刺談	63, 74, 76, 81.	50, 61.	6
31	秋江冷話	*150.	108.	1
32	太平閑話滑稽傳	48, 49.	97.	3
33	巴人識小錄	65, 130, 134, 135.		4
34	破閑集		67.	1
35	稗官雜記	125.		1
36	筆苑雜記	29, 40, 82, 94, 103, 127, 129, 137, 139.		9
37	閑居漫錄	91, 158, 160.		3
38	閑溪漫錄	16, 26, 42.		3

	전대문헌 목록	기문총화 1권에 출전이 명기된 이야기	기문총화 1권에는 출전이 명기되지 않았으나, 전대의 문헌에서 발췌한 이야기	합계
39	玄湖瑣談	115, 143.		2
40	壺谷詩話	149.		1
41	檜山雜記	13.		1
42	晦隱雜識	17, 28, 30.		3
43	晦軒雜錄(?)	126.		1
44	鯁鯖瑣語	41.	84.	2
45	鶴山閑言		180, 181, 182, 183.	4
합계		116편	46편	158

- 1) 인용된 書名이 원책과 달리 표기된 것은 원책에 준하여 넣었음. (예: 竹間閑話 → 竹窓閑話, 菽堂俳話 → 菊堂俳話, 涪溪記閑·涪江紀閑 → 涪溪記閑, 愚齋雜記 → 寄齋雜記, 東岡雜記 → 東岡雜記, 東平感異錄 → 公私見聞錄, 太守閑話 → 太平閑話, 涪稿傳, 裨將雜記 → 裨官雜記 등)
- 2) 현전하지 않는 책은 기문총화에 인용된 책을 그대로 인정하여 넣음. 단 서명 뒤에 (?) 표시를 함.
- 3) 출전이 명기된 이야기 앞의 * 표시는 인용이 잘못되었거나, 원 책에서 찾을 수 없는 이야기임.
- 4) 출전이 명기되지 않은 이야기 앞의 * 표시는 이야기가 변이를 일으킨 것임.

『기문총화』 1권에는 총 183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 이야기인 183화는 『鶴山閑言』에 수록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1권 여백에 쓰다가 중단한 것이다. 또한 기문총화계 중에 이 이야기를 수용하고 있는 이본은 연세대 4책본을 제외하고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후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183편의 이야기 중에 116편은 출처가 밝혀져 있다. 이 중에는 출처를 잘못 밝힌 경우도 있고, 출전을 달리 표기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150화는 출처를 『秋江冷話』로 밝히고 있으나, 이는 『어우야담』에서 수용한 것이다. 61화는 출전을 『靑樓別談』으로 쓰고 있으나, 이는 『靑坡劇談』을 잘못 쓴 것이다. 서울대본 『南溪野談』에는 61화의 출전을 『靑坡劇談』으로 쓰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출전이 다르게 표기된 것은 유전되는 과정에서 誤讀에 의한 誤記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기문총화』 1권에서 10편 이상의 비교적 많은 작품을 발췌한 전대 문헌으로 『公私見聞錄』(18편),

『於于野談』(18편), 『寄齋雜記』(11편), 『慵齋叢話』(10편), 『芝峰類說』(10편), 『筆苑雜記』(9편) 등을 들 수 있다.

위의 도표를 통해 1권 소재 대부분의 이야기는 전대 문헌에서 수용된 것임이 확인된다. 도표에 들어있지 않은 이야기들도 필자가 확인하지 못한 문헌에 수록되어 있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특히 『기문총화』 1화에서부터 160화의 경우 1편의 일화와 5편의 시화를⁹⁾ 제외하고서는 모두 전대 문헌에서 수록한 것이다. 이들 6편도 필자가 확인하지 못한 문헌에 수록되어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180화에서 183화까지는 모두 『鶴山閑言』에서 발췌한 것이다. 『학산한언』에서 발췌한 4편은 그 성격이 앞의 이야기들과는 달리 전대 야담집에서 발췌한 것이고, 또한 비교적 서사적인 줄거리를 갖추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기문총화』 편자는 179화까지 일차적으로 필기류를 수용하여 일정한 체제를 갖춘 후에, 다시 『학산한언』에서 4편의 이야기를 추가로 삽입하였을 가능성이 짙다.

문제는 161화에서 179화까지의 19편의 이야기들이다. 이 이야기들은 출처를 드러내고 있지 않을 뿐더러, 필자 또한 전대 문헌에서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특히 161화 이후의 이야기들 중에는 짧은 필기류도 존재하는 앞의 160화까지의 이야기들과는 달리 비교적 이야기의 편폭이 길고, 조선 후기의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도 보인다. 161화 <崔生 이야기>는 『이조한문단편집』의 첫 이야기로 제시된 <歸郷>이며,¹⁰⁾ 169화 <柳戀>는 몰락 양반이 된 유무의 처지를 하소연 형식으로 펴진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루어 본다면 161화에서 179화까지 19편의 이야기 가운데 ‘적어도’ 몇 이야기는 『기문총화』 편자의 몫으로 돌려져야 할 것이다.¹¹⁾ 그 이야기들은 대체로

9) 45화(일화). 113, 114, 133, 146, 147화(시화).

10) 이우성·임형택 편역, 『이조한문단편집』 상, 일조각, 1973.

11) 물론 이들 19편 이야기들의 출처가 밝혀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19편 이야기가 산발적으로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데 뭉뚱그려져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출처가 드러난다고 해도 그 출처는 여러 작품집이 아닌, 어느 한 작품집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찌되었든 지간에 출처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적어도’ 한데 묶여져 있는 19편의 이야기는 『기문총화』 편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앞서 지적한 바, 이야기의 편폭이 크며, 내용적인 면은 다분히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필기·패설의 수용 양상도 1회에서 160화까지로만 한정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필기 패설 수용양상

『기문총화』의 필기·패설 수용은 몇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 단순히 필기류를 전재하는 경우. 둘째, 전대 문헌의 이야기 중에서 일부분만을 발췌하여 전재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전대 문헌의 이야기를 일정 정도 변개시키면서 수록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가) 전대 문헌의 단순 전재

『기문총화』 1권에서 필기와 패설을 수용하는 양상으로 먼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전대 문헌을 단순 전재하는 것이다. 단순 전재를 하더라도 그 양상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단순 필사. 둘째, 인정기술의 확대. 셋째, 평 부분의 배제 등이 그것이다.

단순 필사는 전대 문헌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李睟光의 『芝峰類說』을 전재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이러한 양상을 보인다.

선조의 성지는 하늘에서 타고난 것이다. 모든 번방의 일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판단하였다. 비변사의 신하들은 임금의 명령이 있을 때마다 “성교가 윤당하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승정원에서는 임금의 명령을 미처 봉행하지 못하면 가끔 “황공하옵니다. 죄를 주옵소서.” 라고 하였다. 그런 까닭에 당시에 “惶恐待罪承政院 上教允當備邊司” 라는 말이 생겼다.¹²⁾

위 인용문은 『지봉유설』 3권 <政治>條에 수록된 내용을 『기문총화』에서 전제한 것이다. 『지봉유설』과 비교하면 ‘宣廟大王’은 ‘宣廟’로, ‘聖教允當覆啓’는 ‘上教允當覆啓’로 바뀌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완전히 동일하다. 이처럼 단순

12) 『기문총화』 1권 6화. “宣廟 聖智出天 凡邊事規畫 皆自睿斷 備局諸臣 每有下問 以聖教允當覆啓 而政院奉行不及 往往惶恐待罪 故其時語曰 惶恐待罪承政院 上教允當備邊司”

히 몇 개의 글자만 바뀌는 형태가 『기문총화』 1권에서 빈번하게 보인다.¹³⁾ 이는 곧 『기문총화』 1권은 전대 문헌을 단순 필사하는 것을 기본축으로 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 전제를 하면서도 몇 가지 독특한 기준을 마련하고 전제하고 있음은 주목할만하다. 마찬가지로 『지봉유설』을 보기로 하자.

과담자 윤계선은 회평의 아들이고, 춘년의 손자이다. 용만에 있을 때에 기생 하나를 사랑하였다. 헤어질 때에 ‘눈이 높기 기원에서도 아름다운 경치가 없더니, 용만에서 창자가 끊어지려 함은 이별이 있기 때문이네’ 라는 시를 지었다. 그리고 이내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 그 기생에게 주었다.¹⁴⁾

위 인용문의 출처는 『지봉유설』 16권 <諧謔>條이다. 『지봉유설』에는 단순히 “윤계선이 용만에서 한 기생을 사랑하였는데(尹繼善 於龍灣眷一娥)” 라고 기술되어 있다. 반면 『기문총화』에는 윤계선에 대한 人定記述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다. 즉 윤계선의 호가 ‘坡潭子’이며, 그가 尹希宏의 아들이며, 尹春年の 손자임을 굳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문총화』에서 한 인물에 대한 인정기술이 확대되는 양상은 흔하게 보인다.

- ① 공안공 정옥형의 자는 가중으로 나주 사람이며 월헌 수강의 아들이다.¹⁵⁾
- ② 익평공 이극배의 자는 겸보로 평주 사람이며, 충희공 인손의 아들이고, 둔촌 집의 증손이다.¹⁶⁾
- ③ 하정 문간공 유판의 자는 경부로 문화 사람이며, 고려조의 명신 공권의 육세손이다.¹⁷⁾

인용문 ①은 『鯁鱗瑣語』 內 「清江先生思齊錄」에서 전제한 것이다. 『후청쇄

13) 1화, 2화, 9화, 32화, 35화, 44화, 52화, 54화, 66화, 69화, 93화, 98화 등

14) 『기문총화』 1권 57화. “坡潭子尹繼善 希宏之子也 春年之孫也 於龍灣眷一娥 臨別有詩曰 眼高箕院無住麗 腸斷龍灣有別離 因剪其髮以贈之”

15) 『기문총화』 1권 41화 “丁恭安公玉享(亨?) 字嘉仲 羅州人 月軒壽岡之子也”

16) 『기문총화』 1권 105화 “李翼平公克培 字謙甫 廣州人 忠僖公仁孫之子 遞村集之曾孫也”

17) 『기문총화』 1권 103화 “夏亭柳文簡公寬 字敬夫 文化人 麗朝名臣公權之六世孫也”

어,에는 이 부분이 단순히 “찬성 정옥형[丁贊成玉亨]”이라고만 기술되어 있다. ②는 『松窩雜說』에서 전제한 것으로, 『송와잡설』에는 이 부분이 “상공 이극배[李相公克培]”라고 기술되어 있다. ③은 『筆苑雜記』에서 전제한 것으로, 『필원잡기』에는 이 부분이 “문정공 유관[柳文貞公寬]”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전대 문헌을 수용하면서도 『기문총화』 1권에서 인정기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만은 공통적인 현상이다.

인정기술의 확대는 조선 후기 이야기 문학의 발달과는 그 성격이 다소 괴리된다. 특히 『기문총화』보다 후대에 형성된 『靑邱野談』은 전대 문헌을 수용하면서 오히려 인정기술 부분이 탈락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¹⁸⁾ 인정기술의 확대는 문학사의 역행되는 현상으로서까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문총화』 1권은 야담집이 아닌 필기류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기문총화』 2권과 3권에서는 1권처럼 인정기술이 확대되지는 않는다.¹⁹⁾ 이는 1권과 2권·3권이 서로 다른 갈래였기 때문에 그 수용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곧 인정기술의 확대 현상은 『기문총화』 편자가 필기류를 수용할 때에는 주변 정황에 대한 잡다한 지식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만한 것은 전대 문헌의 評 부분이 『기문총화』에서는 대부분 삭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평은 찬자가 이야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찬자의 의견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기문총화』는 전대 문헌을 단순 전제하면서, 3화 <具壽永 이야기>처럼 평을 그대로 수록하는 경우도 있지만,²⁰⁾ 대부분은 평 부분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

① 내가 일찍이 이 이야기를 선배에게서 들었으나 자세한 것은 알지 못

18) 정명기, 「청구야담에 나타난 전대문헌 수용양상 연구」, 『한국야담연구』, 보고사, 1996.

19) 물론 다른 야담집들보다 인정기술 부분이 많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이는 『기문총화』 편자의 이야기 문학을 수용하는 태도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분명할 것은 1권은 2권과 3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정기술 부분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20) 『기문총화』 1권 3화는 『기재잡기』에 수록된 것이다. 1권에서 평이 들어있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유일하다.

하였다. 인홍군이 지은 『월창한화』를 보니 또한 이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인홍군은 선조조의 왕자이므로 그 이야기가 마땅히 믿을만한 것이리라.”²¹⁾

② 그들 또한 임금의 교화를 받은 한 사람으로, 차마 나라를 등지고 적을 좇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다름아닌 충인 것이다. 아, 슬프도다!²²⁾

③ 옛날에는 궁궐에서 숙직하는 것이 매우 엄하여서 숙직을 하고 나가는 자는 뺨뺨하였고, 숙직을 하러 들어오는 사람은 굽송거렸다. 요즘에는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모두 어그러져 있다. 비록 판직을 파면하겠다고 잇달아 조정에서 논평을 내어도 오히려 태연하기만 하고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다. 기강에 얽매이는 바로도 또한 세상이 변함을 알 수 있구나.²³⁾

인용문 ①은 『기문총화』 7화, 곧 ‘선조의 筆法을 잘 모방하던 내시 李鳳庭에게 당시 영의정인 李淩慶이 꾸짖자 이봉정이 글씨체를 바꾸었고 선조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는 내용 뒤에 『공사견문록』에 붙어 있는 鄭載崙의 평 부분이다. 이 평은 이야기가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정재륜이 실정한 것이다. 정재륜은 이야기 자체에 대한 흥미도 갖고 있지만, 그 이야기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평을 쓰고 있는 것이다. 『기문총화』 1권에서 『공사견문록』 소재 이야기를 단순 전제한 것은 총 10편인데,²⁴⁾ 『기문총화』에서는 평이나 부대 서술이 모두 탈락되어 있다.

②는 『어우야담』에 들어 있는 평이다. 이 평은 論介의 사적을 이야기한 후, 논개 이외에도 임진왜란 때 왜적에게 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자결한 이름 없는 기생들이 많았음을 기술하고 난 다음에 씌어진 것이다. 柳夢寅은 평을 삼입시킴으로써 내용을 주관적인 시각으로 이끌고 있다. 자신의 경험인 ‘슬프다 [歎歎哀哉]’ 라는 기술을 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그 슬픔에 공유하게 하고 있다. 『기문총화』에는 이처럼 ‘강요되는’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또다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인용문 ③에서 유용인은 궁궐에서 숙직하는 세태가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기문총화』 편자는 평이 내용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제하고 있다. 『어우야

21) 『공사견문록』 前集 7화. “余嘗聞此言於先輩 而未得其詳 及見仁興君所撰月窓夜話 亦載此語 仁興卽宣廟朝王子也 其言宜可信”

22) 『어우야담』 1권 孝烈條. “渠亦聖化中一物 不忍背國從賊 無他忠而已矣 歎歎哀哉”

23) 『어우야담』 4권 古風條. “蓋古者禁直甚嚴 出者驕之 入者丐之 近者出入俱闕 雖能官糴以朝評 猶晏然不動 紀綱所繫 亦可以觀世變也”

24) 11화, 14화, 15화, 25화, 78화, 88화, 109화, 110화, 132화, 140화.

담』에는 들어 있는 평이 『기문총화』에서 누락되어 있는 이야기는 총 7편이 있다.²⁵⁾

평이 배제되는 것은 작품의 내용에 대해 편자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느끼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다. 이 점은 주어진 이야기에 대해 단일한 해석의 시점을 마련하는 대신 다양한 해석의 가능대를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평의 배제는 평에 의한 고정된 시각보다는 하나의 이야기로 볼 수 있게끔 하므로 이야기 문학의 보다 발전된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논평의 배제는 앞서 논의한 인정 기술의 확대와는 정반대의 향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점은 이야기를 즐기되, 그에 따른 주변 정황에 대한 관심도 많았던 필기류의 특성을 더욱 적절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전대 문헌의 일부 전제

『기문총화』 1권에서 필기·패설을 수용하는 양상으로 전대 문헌을 일부 전제하는 경우가 있다. 전대 문헌을 일부 전제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 여러 개의 삽화 중에 일부의 삽화만을 수록하는 경우. 둘째, 편찬자의 의도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나 이야기 전개상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삭제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먼저 전대 문헌에는 여러 개의 삽화로 구성된 이야기를 일부의 삽화만을 발췌하여 수록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기문총화』 144화 <朴以浬 이야기>는 『慵齋叢話』 4권에서 수용한 것인데, 『용재총화』에는 <박이창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삽화로 구성되어 있다.

① 朴以浬은 崔安身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기개가 있고 談辯이 익살스러웠다.

㉠-1 어려울 때 상주에 살았는데 학문에 힘쓰지 않았다.

㉠-2 科日이 임박하자 이웃집 과부가 이창에게 그의 아들을 데리고 科場에 갈 것을 부탁하였다.

㉠-3 과장에 들어가서 백지를 내고 나오면 남의 웃음을 살 것이라 생각하고 여지로 글을 지어서 냈는데, 장원이었다.

25) 36화, 64화, 75화, 77화, 120화, 121화, 150화.

- ㉔-4 이창이 이로 인해 뜻을 바르게 하였다.
- ㉔-1 이창이 처음 翰林에 들어가게 되었다.
- ㉔-2 한림에 처음 들어오는 자를 新來라 하며, 선배들이 괴롭히다가 50 일 후에 자리에 앉게 한다.
- ㉔-3 이창은 행동이 조심스럽지 못하여 기간이 지나도 자리에 앉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 ㉔-4 이창이 이를 분노하여 스스로 자리에 앉으니 사람들이 自許免新이라 불렀다.
- ㉔-1 이창이 승지가 되어 임금을 모시고 가는데 관광하는 남녀가 많았다.
- ㉔-2 한 여인이 주렴을 건어올려 얼굴이 얼핏 보이자, 이창이 그 여자를 자신의 손으로 끌어내리고 싶다고 하였다.
- ㉔-3 동료가 저 여인은 사대부집 규수인데 이러한 말을 함부로 한다며 편잔을 주었다.
- ㉔-4 이창은 이에 ‘저 여인이 사대부집 규수라면 나는 사대부집 자제가 아니냐’고 대꾸를 하자,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 ㉔-5 이창의 말재주가 이와 같은 것이 많았다.
- ㉔-1 재상으로 北京에 가는 사람에게는 평안도 州邑에서 양식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로써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았다.
- ㉔-2 이창이 그 폐단을 임금에게 아뢰었다.
- ㉔-3 이창이 북경으로 가게 되자 길이 먼 것을 염려하여 양식을 많이 가지고 갔는데, 이 일이 발각되어 심문을 받게 되었다.
- ㉔-4 이창이 新安館에 도착해서 ‘무슨 낮으로 임금을 다시 보리오’ 하고는 자살하였다.

『용재총화』에는 모두 4개의 삽화를 제시하여 박이창이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삽화 간에는 일관성이 없이 하나하나가 독자적인 성격을 갖는다. 때문에 『기문총화』의 편자는 이 중 자신이 가장 흥미롭게 생각한 삽화 하나만을 발췌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삼은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기문총화』 편자는 박이창의 말재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개의 삽화 중에서 하나의 삽화만을 추려 전제하는 경우는 전대 여러 문헌에서 고루 보이는 현상이다. 그러나 위 인용문처럼 네 개 이상의 삽화 중에서 하나만을 발췌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은 두 개의 삽화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다. 이는 하나의 삽화가 곧 하나의 이야기라는 인식을 『기문총화』 편자는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반대로 몇 개의 전대 문헌의 삽화를 하나로 묶어 한 이야기를 만드

는 경우를 상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문총화』에서 이러한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²⁶⁾ 이 점은 『기문총화』가 전대 문헌을 단순 전제하거나, 편찬자 자신의 구미에 맞는 삽화만을 발췌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여러 개의 삽화를 하나로 모아 이야기를 만들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꾸며가는 양상은 『기문총화』가 전대의 『계서잡록』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아류로써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편찬자의 의도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나 이야기 전개상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다시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전대 문헌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누락하는 경우. 둘째, 편찬자의 의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대 문헌에 수록된 이야기가 길어질 때 이야기 전개상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생략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첫째의 경우는 『기문총화』 편자가 전대 문헌을 보고 그것을 베껴쓰는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을 누락하는 경우로 비의도적인 오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문총화』에서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

① 조연형이 말하기를 “자네(강혼)가 지난 날 한 것은 게 돼지판도 못했는데 누가 그 먹다 남은 것을 먹으려 하겠는가? 자네가 젊었을 때에는 총명하여 가이 사립만 하였었네. 어찌 小技를 부리며 처신을 형상하기조차 어렵게 하는 것이 이렇게 심할줄 알았겠나?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할 것이네. 내가 글을 보내 절교하고자 한 지가 오래 되었네.”(書曰 予之前日所爲 狗彘不若 誰食其餘 予在少時 聽慧敏給 以爲可交 豈知挾小技 行身無狀 至於此極乎 生不如死之爲愈也 僕欲貽書絕交 久矣)²⁷⁾

②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자못 김안로를 건드렸다. 이조정랑 홍선이 “진회전을 불가불 그(김안로)에게 보여 주어야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허흠이 말리면서, “정랑, 꺾히셨구려. 무슨 말이 그렇게 경솔하신가? 내가 비록 들었다한들 어찌 차마 누설하지는 않겠소마는 공이 대궐하였느

26) 이러한 현상은 1권에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4권에는 이러한 현상이 간간히 보인다. 그러한 예는 4권의 72화 등이 있다. 4권은 시화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시까지 끌어다가 대구를 맞추기도 한다. 이 점을 통해서도 『기문총화』 1권과 4권의 편찬 기준이 다름이 다시 확인된다.

27) 『기재잡기』 2권 37화.

니 속히 집으로 돌아가시구려.” 흥섭이 말하기를, “돌아가는 길에 또한 아우님(허항)되시는 대사헌 영감을 뵈을까합니다.” 허흡이 놀라면서 말하기를(言聞頗保安老 且曰 秦檜傳不可不使見之 洽亟止之曰 正郎醉矣 何言之率爾也 吾雖聞之 寧忍漏之 然公大醉 須速還家 洪曰 歸路且欲見季令大憲也 洽愕然曰)²⁸⁾

위의 인용문은 모두 『寄齋雜記』 2권에 수록된 이야기이다. 굵게 표시된 부분은 『기문총화』에는 모두 누락되어 있다. ①은 표시된 부분이 누락되어도 이야기 전개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그러나 ②는, 표시된 부분이 누락됨으로 인해, 宋나라 간신인 秦檜의 傳을 보이려는 객체가 金安老가 아닌 許沈이 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기문총화』의 편자가 전대 문헌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라기 보다는 비의도적인 오류를 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기문총화』 편자의 의식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경우가 있다.

① 정숙옹주는 선조의 딸이자 동양위 신익성의 아내이다. 자신의 마당이 좁은 것을 싫어하여 임금에게 아뢰기를, “이웃집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말 소리가 들리고, 처마가 얹아서 집안이 들여다 보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원하옵건대 그 땅을 샀으면 합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말소리를 낮추면 들리지 않을 것이고, 처마를 막으면 보이지 않을 것이어늘 굳이 마당을 넓힐 필요가 있겠는가? 사람이 거처하는 곳이란 무릎을 움직일 수 있는 곳이면 족하느니라.” 라고 하고는, 인하여 두 개의 발을 주시면서 “이것을 드리워서 가리면 되리라.” 라고 하였다. 옹주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였다.²⁹⁾

② 남곤이 황해감사가 되었을 때 해주 기생을 몹시 사랑하였다. 임기가 끝나 돌아오다가 금교역에 이르러서는 고을 수령에게 말하였다. “반드시 그 기생이 이별을 하러 이 역까지 쫓아 올 것이외다.” 그러나 기다려도 그 기생은 오지 않자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절구 한 수를 지어 벽상에 붙여 두었다. 칠언절구.³⁰⁾

28) 『기재잡기』 2권 57화.

29) 『기문총화』 1권 8화. “貞淑翁主 宣兩女而東陽尉內地 嫌其庭狹隘 告之於上曰 隣家逼側 語聲相聞 府宇淺露 無有碍隔 願得價而買其地 上曰 聲低則不聞 檐隔則不見 庭何必廣乎 人之居處 容膝足矣 因下亂簾二部曰 垂此而蔽之 可也 翁主不敢加奏”

③ 광해군 때에 홍문관 서리 김충렬은 종회 김상공이 권세를 멋대로 부려 백성의 원망을 사는 것을 보고 상소문을 올렸다. ‘혁혁한 周나라는 포사가 땅하게 하였고, 우리 조선 삼백년 종사는 김상공이 없앨 것입니다. 신은 전하를 위해 통곡하옵니다.’ 승정원에 이 상소문이 이르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마침내 풀리쳐 버렸다. 김충렬은 시을을 조금 알아 스스로 玉壺라고 하였다.³¹⁾

인용문 ①은 『공사전문록』에 수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기문총화』에서 전제한 것이다. 인용문만을 놓고 보면 선조의 청빈함을 드러낸 이야기로 파악된다. 그러나 『공사전문록』에는 이 이야기에 이어 “(옹주는) 인조반정 이후 비로소 개인의 재물로 그 땅을 사서 늘렸다고 한다”³²⁾ 라는 후일담이 첨가되어 있다. 후일담이 첨부됨으로 인해, 이 이야기는 선조의 청빈함보다 끝내 그 땅을 사서 마당을 넓힌 정숙옹주의 욕심이 더 강조된다. 『기문총화』의 편자는 이처럼 정숙옹주의 욕심보다는 선조의 청빈함에 이야기의 초점을 두려고 했기 때문에 굳이 원 출전에 쓰여진 후일담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②는 『愚齋摭言』에 수록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남곤이 기생을 기다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남곤을 다소 희화적인 인물로 설정하고 있다. 즉 정에 쉽게 이끌리는 인물로 남곤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사재척언』에는 칠언 절구 바로 다음에 “이 시를 듣는 사람들이 ‘미인을 읊은 정이 그 절묘함을 닮았으니 다른 사람들이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³³⁾ 라는 후기를 적고 있다. 이 후기로 인해 남곤의 인물에 대한 평가보다 남곤의 香奩詩에 더 초점이 놓이게 된다. 『사재척언』에서는 남곤의 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면, 『기문총화』에는 후기를 배제함으로써 남곤의 인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게 한 것이다.³⁴⁾ 『기문총화』의 편자는 남곤의 시보다 인물에 대해 더 관

30) 『기문총화』 1권 68화. “南袞 貞(當?)爲黃海監司 鍾愛海州妓 遷到金郊驛 謂主伴曰 必以妓迫別之到驛字 待之不來 終夜無寐 吟一絕書壁上曰 葉走空庭窸窣鳴 誤驚前夜曳鞋聲 旅窓孤枕渾無寐 半壁殘燈翳復明”

31) 『기문총화』 1권 11화. “光海廟 弘文館書吏金忠烈 見寵姬(姬?)金尙宮用事 人心憤惋 上疏 赫赫宗周 覆滅之 我朝鮮三百年宗祀(社?) 金尙宮滅之 臣爲殿下痛哭等語 到政院 論議不一 終至退却 忠烈稍解詩律 自號玉壺”

32) 『공사전문록』 前集 16화. “及仁祖改玉後 始以私財 買以益之云”

33) 『사재척언』. “聞者謂香奩情態 曲盡其妙 人莫能及也”

심을 보였기 때문에 굳이 후기를 배제한 것이다.

③은 김충렬에 대한 강직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승정원 사람들에 대한 용렬함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 어쩌면 김충렬에 대한 평가보다도 승정원 사람들의 용렬함이 더욱 인상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사견문록』에는 “김충렬은 시울을 조금 알아 스스로 玉壺라고 하였다”라는 『기문총화』의 기술 부분 앞에 “김충렬의 신분은 낮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였으니 충직한 기상이 지금까지도 넘름하다. 이것은 祖宗이 言路를 높인 효과가 아니겠는가?”³⁵⁾라는 정재륜의 개인적인 견해가 삽입되어 있다. 정재륜은 하천민으로서 바른 말을 하는 김충렬을 칭찬하며, 그 이유는 祖宗에서 언로를 높인 데서 찾고 있다. 『기문총화』 편자는 『공사견문록』의 이야기를 수용하며 정재륜의 의견은 사제함으로써 김충렬의 높은 기상을 드러냄과 동시에 승정원 사람들의 용렬함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문총화』 편자는 자신의 의식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분을 탈락시킴으로써 이야기 내용의 방향을 전혀 다른 곳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이는 전대 문헌을 대체적으로 단순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취향과 어긋날 때는 일부분만을 선정하여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대 문헌에 수록된 이야기가 길어질 때 이야기 전개상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생략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다음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① “최형·최평·최항은 나팔 형제라,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넓기 때문이지. 양정·양지·양강은 송곳 형제라, 이들은 위가 넓고 아래가 뾰족하기 때문이지.” 그 뒤 세상 사람들이 조인수·조사수는 장고 형제라고 하였는데, 얼굴은 넓고 중앙은 가늘기 때문이다.³⁶⁾

34) 또한 『사재척언』에는 남곤이 직접 기생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마음 속으로 ‘수령이 자신을 위해 기생에게 역까지 배움하여 이별하도록 권하겠지’라는 생각만 한다.

35) 『公私見聞錄』 前集 49화. “而忠烈身在下賤 言人所不敢言 忠直之氣 至今凜凜 此無非祖宗崇獎言者之效也”

36) 『기문총화』 1권 97화. “崔衡·崔萍·崔恒 稱羅縷兄弟 言上尖 而下廣也 楊汀·楊址·楊강 錐子兄弟 言上廣下尖也 其後世以趙彥秀·趙士秀 爲腰鼓兄弟 亦言兩而廣 而中央細也”

② 지성에 감동하여 충이 효로 옮겨간 것이니 가상하도다.³⁷⁾

인용문 ①은 사람의 姓氏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출처는 『太平閑話滑稽傳』이다. 그런데 『태평한화골계전』에는 양정·양지·양강 이후에도 유사한 사람의 이름을 한데 묶어 기술한 것이 13차례가 더 있다.³⁸⁾ 『기문총화』의 편자는 비슷한 말장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생략한 것이다. ②는 車軾의 효성을 이야기한 것으로, 출처는 『어우야담』이다. 차식의 효성이 지극하더니 병든 어머니를 위해 봉황이 가물치를 내려주었다는 이야기인데, 『기문총화』 후미에 인용문 ②가 기재되어 있다. 『기문총화』에는 짧은 이 부분이 『어우야담』에는 상당히 장황하게 기술되어 있다. 곧 “아! 車軾은 글을 하는 선비로다. 나라의 가장 큰 일인 제사지내는 일을 능히 알아 성심을 다하여 예로써 임금을 제사지냈다. 마침내 돌아가신 선조의 영혼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충이 효로 옮겨졌으니, 『서경』에 이르기를 ‘지성이면 귀신도 감동한다’고 하였고, 『시경』에 이르기를 ‘모두가 너의 복이로다’ 한 것은 이것을 이르는 것이다. 자식 두 명을 두었는데 車天輅와 車雲輅로 모두가 문장으로 한 시대를 올렸다.”³⁹⁾ 라고 되어 있다. 이는 『기문총화』 편자가 이 부분이 이야기 전개와 무관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축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외에 논개에 관한 이야기에도 이러한 양상은 그대로 나타난다. 『어우야담』에는 “萬曆 癸巳年에 倡義師 金千鎰이 진주에 들어와 왜적과 맞싸 싸웠으나 성이 함락되고 군사는 패하여 인민들이 모두 죽었다”⁴⁰⁾ 라고 계사년의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기문총화』에는 이 정황 자체가 번거롭다고 여겼기에 단지 “계사년에(癸巳)”라고만 기술하고 있다. 『기문총화』 편자는 사건 정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논개의 행적만이 중요했던 것이다. 이처럼 후일담을 삭제하거나 번거로운 부분을 축소하는 것은 『기문총화』 편자가 이야기

37) 『기문총화』 1권 77화. “至誠所感 移忠於孝 可嘉也”

38) 『태평한화골계전』 186화.

39) 『어우야담』 1권 孝烈條. “吁! 軾文章之士也. 能知國之大事. 在祀 殫誠禮以享上. 卒致先靈佑. 移忠於孝. 書曰 至誠感神. 詩曰 介爾景福. 其是之謂乎. 有二子. 曰天輅雲輅. 皆文章大手. 鳴一代”

40) 『어우야담』 1권 孝烈條. “當萬曆癸巳之歲. 金千鎰倡義之師. 入據晉州以抗倭. 及城陷軍敗. 人民俱死”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전대 문헌의 변개 전제

『기문총화』 1권에서 필기·패설을 수용하는 양상으로 전대 문헌을 변개 전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거의 볼 수 없다. 변개라 하더라도 그것은 적극적인 변개가 아닌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개 전제’라는 항목 설정부터 위대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분명히 단순 전제와 일부 전제와는 그 층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항목을 설정한 필요가 있다. 『기문총화』에서 전대 문헌을 변개 전제하는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전대 문헌의 번거롭고 복잡한 부분을 刪削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경우이다.

먼저 전대 문헌의 내용이 복잡하고 지리할 때 『기문총화』에서 그러한 부분을 산삭하여 재정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용재총화』 1권에 수록된 歲時名日に 관한 내용을 『기문총화』에서 수용하는 양상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편의상 이야기가 시작되는 선달 그림날에 관한 부분만을 살펴보기로 하자.

① 해마다 명절에 행해지는 일들이 많다. 선달 그림날에는 아이들 수십 명을 모아 아이 초라니[侏子]로 삼고는 붉은 옷과 붉은 두건을 씌우고 궁중으로 보낸다. 觀象監은 (새해가 오는 시간을 알리기 위해) 북과 피리를 준비해 두었다가, 새벽이 되면 方相氏가 그들을 쫓아낸다. 민간에서도 또한 이 일을 모방하였는데, 비록 아이 초라니는 없으나, 녹색 대잎·붉은 형지·익도초 줄기·동쪽으로 난 복숭아 나무가지를 합하여 비를 만들어 대문을 두드리며 북과 바라를 치면서 문 밖으로 쫓아낸다. 이를 ‘枚鬼를 쫓아내는 것[放枚鬼]’이라 한다. 이른 새벽에는 대문·창문·사립문에 그림을 붙이는데, 處容·도깨비 쫓는 귀신[角鬼鍾馗]·僕頭官人·介冑將軍·淸珍寶婦人 그림과 닭 그림·호랑이 그림 따위이다.⁴¹⁾

② 해마다 명절에 행해지는 일들이 많다. 선달 그림날에는 폭죽을 터트

41) 『용재총화』 1권 10화. “歲時名日所學之事多 除夜前日 聚小童數十名 爲侏子 被紅衣紅巾 納于宮中 觀象監備鼓笛 方相氏臨曉驅出之 民間亦倣此事 雖無侏子 以綠竹葉·紫荊枝·益母莖·桃葉枝 合而不節 亂擊楹戶 鳴鼓鉦而驅出門外 日放枚鬼 清晨付畫物於門戶窓扉 如處容·角鬼鍾馗·僕頭官人·介冑將軍·淸珍寶婦人·鷄·鷄虎之類也”

리며 바라를 올리면서 쫓아내는데 이를 '枚鬼를 쫓아내는 것[放枚鬼]'이라 한다. 이른 새벽에는 대문·창문·사립문에 도깨비 쫓는 귀신[角鬼鍾馗] 그림을 붙이는데 이것을 '사악함을 쫓는 것[辟邪]'이라 한다.⁴²⁾

인용문 ①은 『용재총화』에 수록된 것으로 선달 그믐날에 행해지는 일이다. 반면 ②는 『기문총화』에 수록된 것이다. 인용문에서도 보듯이 『용재총화』에서는 복잡하게 선달 그믐날 풍경을 그리고 있다. 반면 『기문총화』에는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 『기문총화』 편자는 『용재총화』에 수록된 이 이야기가 지나치게 번거롭다고 느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격만을 남겨두고 상당 부분을 배제하고 정리한 것이다. 또한 『용재총화』에는 옛날의 풍속이 성현이 살았을 당시에는 어떠하였는가를 설명하는 부분도 『기문총화』에는 모두 삭제되어 있다. 이처럼 번다한 내용을 탈락시키는 것은 <射琴匣 이야기>에서 약밥을 만드는 부분을 탈락시키는 현상에서도 아울러 찾아진다.⁴³⁾

다음으로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경우가 있다. 『기문총화』 1권에서 이 경우는 한 번 보인다. 『기문총화』 10화가 그것인데, 『어우야담』에는 이 이야기가 900여자 정도로 비교적 분량이 길다. 『기문총화』에서는 『어우야담』의 긴 이야기를 300여자로 축약하여 정리하고 있다.

『어우야담』에는 金應河의 일대기 형식을 빌어 몇 개 중요한 일화를 기술한 후, 己未(1619)년 朝明 연합군과 後金軍의 싸움에서 김응하가 어떻게 전쟁에 임하였는가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⁴⁴⁾ 그러나 『기문총화』에는 『어우야담』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삽화 중에 김응하의 용력을 잘 보여주는 삽화 하나만을 발췌하였다. 그리고 그 삽화에 이어 기미년 싸움을 기술하고 있다.

기미년 深河의 전투에서 아군이 패배하자, 장군은 말에서 내려 홀로 버드나무에 의지하여 무수한 적군을 쏘아 죽이고서 자신도 죽었다. 장군의 충의로 큰 도적들의 군영을 무너뜨리고, 아군의 수가 현격하게 적은데도

42) 『기문총화』 1권 123화. “歲時名日所舉之事(多*) 除夜前日 爆竹鳴鉦而逐出 曰放枚鬼 清晨付齋物於門戶窓扉 如角鬼鍾馗之相者 曰辟邪”

43) 전성운, 「사극담 이야기의 수용양상과 서술태도」, 『한국민속학』 31, 민속학회, 1999.

44) 『어우야담』 만종재본 1권 忠義條.

조용히 진을 헤치고 깃발을 날리며 홀로 전쟁을 한 것이 첫번째 기이함이다. 오랑캐 병사가 오지 않았는데 통역관을 부른 것은 강화할 뜻이 있었던 것인데, 장군은 처음부터 끝까지 힘껏 싸운 것이 두번째 기이함이다. …(중략)… 다섯번째 기이함이다.⁴⁵⁾

그런데 위의 인용문을 읽어 보면 그 내용 전개가 매끄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김응하가 기미년 전투에서 단지 아군이 패배하자 적군을 쫓아 죽이고 자신도 죽었다는 내용도 모호하다. 그보다 김응하가 죽었는데 갑자기 다섯 가지 기이함을 제시하는 것은 이야기 전개에서 더욱 이상하다. 이는 『기문총화』 편자가 『어우야담』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빚어낸 오류이다. 『어우야담』에서 유몽인은 김응하가 어떻게 전장에서 싸웠는가를 상세하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죽은 김응하에 대해 다섯 가지의 기이함을 논평의 형식으로 길게 서술하고 있다. 『기문총화』에서는 김응하의 전장에서의 싸움을 지나치게 축약하고, 유몽인의 논평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당기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논리에 맞지 않는 모호한 작품으로 남게 된 것이다. 특히 다섯 가지 기이함은 전쟁에서 김응하가 싸운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인데, 그러한 내용을 배제하고 다섯 가지 기이함을 아울러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적지 않은 혼돈을 하게 된다. 다섯 가지 기이함이 왜 드러나야 하는가는 『어우야담』을 참조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까지 된 것이다.⁴⁶⁾

이런 점에서 『기문총화』 편자는 기존의 이야기를 단순 전제하거나 일부를 발췌하는 경향은 많은데, 새로운 이야기로 만드는 데에는 미숙했던 인물로 볼 수 있다. <김응하 이야기>는 『기문총화』 편자가 『어우야담』을 수용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개작의 양상을 보이려고는 하였으나 실패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편자의 능력으로 인해 『기문총화』에서 개작의 양상으로까지 전개한 이야기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45) 『기문총화』 1권 10화. “己未 臨河之戰 我軍敗衄 將軍下馬 獨依柳樹 射殺無數而死 將軍之忠義 大賊壓營 衆寡懸殊 而從容擺陣 鸞旗獨戰 一奇也 胡兵未來 呼通使 意在講和 公終始力戰 二奇也 …(중략)… 五奇也”

46) 이 이야기는 현대의 독자들 뿐 아니라, 예전부터 모호하다고 하여 일부러 수용하지 않은 것 같다. 현존하는 이본들 중에 이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 이본은 대본이 된 연세대 4권 4책본과 영남대본 뿐이다.

3. 紀聞叢話의 前代文獻 受容의 史的 意味

이상의 논의를 통해 『기문총화』 1권에서 전대 문헌을 수용하는 태도와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기문총화』 편자가 전대 문헌을 수용하는 양상으로 가장 먼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를 변개시켜 전재하는 경우보다 단순 전재나 일부 전재에 더 무게 중심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 전재나 일부 전재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주어진 이야기에 대해 변화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미약함을 의미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여러 자료집들 중에 편자 자신의 취향에 부합하는 이야기만을 선별하여 그대로 ‘베껴쓰는’ 것에 중심을 둘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야기 수용에 관한 한 무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 전재나 일부 전재가 중심이 된다고 해서 결코 『기문총화』 편자의 시각이 편협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단순 전재나 일부 전재를 중심으로 전대 문헌을 수용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는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순 전제일 경우에는 인정기술의 확대와 평 부분의 배제를 통해, 일부 전제일 경우 여러 개의 삽화 중에 하나의 삽화만을 발췌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거나, 혹은 편자의 의식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삭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명목적으로 전대 문헌을 수용하는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일정한 기준점은 곧 『기문총화』 1권에서 전대 문헌을 수용하는 양상 가운데 추출되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단순 전제에서 인정기술의 확대와 평 부분의 배제는 앞장에서 논의한 것을 더 확대시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야담은 조선 후기 이야기 문학의 발달과 함께 자신의 영역을 굳건히 하며 하나의 독자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따라서 후기 야담집이 초기 야담집을 수용할 때에도 사건의 중심점에서 벗어나는 부대 서술, 즉 인정기술·평·제보자를 포함한 작품의 출처·사건의 경황 등과 같은 주변 상황은 대부분 탈락시키고 있다.⁴⁷⁾ 이러한 현상은 이야기 자체에만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그 외 주변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표명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

47) 정명기, 「청구야담에 나타난 전대문헌 수용양상 연구」, 『한국야담문학연구』, 보교사, 1996.

문총화』 1권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대립항이 설정된다. 곧 인정기술 부분은 확대되고, 평 부분은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쪽은 이야기 문학의 발달과 역행하는 현상이며, 다른 한 쪽은 이야기 문학의 발달에 순응하는 현상이다. 이를 괴이한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기문총화』 1권을 야담집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기문총화』 1권은 야담집이 아니라, 잡록이기 때문에 문학사의 주된 흐름과 서로 엇갈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즉 『기문총화』 1권은 필기와 패설과 시화가 혼효되어 있는 잡록이기 때문에 한 쪽은 이야기 문학의 발달과 역행되는 현상이, 다른 한 쪽은 이야기 문학의 발달에 순행하는 괴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필기류는 破閑이라는 내적 목적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 과한 속에는 찬자의 잡다한 지식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독자들은 필기류에 대해 비난보다는 경탄의 목소리를 더 강하게 드러낸다.⁴⁸⁾ 때문에 『기문총화』에서 이야기 문학에 대한 기호를 드러내면서도 이면으로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 이러한 현상을 보인 것이다. 이 점은 『기문총화』 편자의 갈래 인식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기문총화』 1권과 2권·3권을 分冊한 점에서도 이 점을 읽어낼 수 있고, 나아가 그 내용에서도 편자의 갈래 인식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부 전재에서 여러 개의 삽화 중에 하나의 삽화만을 발췌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거나, 혹은 편자의 의식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삭제하고 있다는 것은 『기문총화』 편자가 미약하지만은 이야기 속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야담집의 편자가 어떠한 이야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재정리하거나 일정한 변이를 꾀하는 현상은 조선 후기 필기와 야담의 유전 과정에서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제명을 달리하는 야담집이나 필기서가 많이 보이는 것이다. 많은 이들 자료들 중에 굳이 계통을 세워 그 뿌리에 귀속시킨다면 현존하는 자료들 상당 수가 그 뿌리에 귀속될 것이다.⁴⁹⁾ 동일한 책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 순서를 재정리하

48) 잡록의 갈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그 쟁점 또한 만만치 않다. 이 글에서 잡록의 갈래론까지 언급하는 것은 논의 방향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갈래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다루고자 한다.

49) 예컨대 『기문총화』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제명을 달리한 이본들은 현재까지

거나 선별·발췌하는 것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책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다른 제명의 책으로 포장되어 나온 것이다. 이처럼 이야기 순서를 정리하거나 선별·발췌하는 양상은 당시의 이야기 수용자들에게는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었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야기를 개작하거나 변개시키는 정도까지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편자는 단순 전재를 하는 것을 가장 큰 원칙으로 삼았으며, 주어진 이야기가 편자의 의도와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만 소극적으로 이야기 속에 개입하는 것이다. 소극적이라고 해도 편자의 취향에 맞지 않는 부분을 삭제하는 정도가 고작인 것이다. 이 점은 야담이나 필기가 어떻게 유전되어 왔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예인 것이다. 즉 편자들은 대체로 비의도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는 한 원래 주어진 이야기의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고, 그보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변개시키려는 의도는 매우 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설령 이야기에 대해 많은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야기를 수용할 때에는 해당 부분을 탈락시키는 것으로 그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다.

4. 맺는 말

이상에서 『기문총화』 1권에서 전대 문헌을 수용하는 양상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필자가 제시한 논의를 대략적으로 정리하면서 그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맺는 말을 대신코자 한다.

『기문총화』 1권 183편 중에 158편은 전대 문헌에서 전재한 것이다. 이들 중 1화에서부터 160화까지는, 전대 문헌에서 발췌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필자가 찾지 못한 6편을 제외하고, 모두 출처가 밝혀져 있다. 그리고 180화에서 183화까지의 4편은 『학산한언』에서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161화에서부터 179화까지 총 19편은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그 내용도 사회적인 문제를

16종이 확인된다. 『叢話』, 『紀話』, 『海東奇話』, 『野錄』, 『靑邱叢話』, 『荷潭漫錄』, 『我東奇聞』, 『南溪野談』, 『東國瑣談』, 『靑邱奇話』, 『東國故辭』, 『選諺篇』, 『瑣語』, 『醒睡叢話』, 『雜同散』 등.

담고 있는 것도 있고, 편폭도 비교적 길다는 점에서 19편 중 ‘적어도’ 몇 편은 『기문총화』 편자의 몫으로 돌려져야 할 것이다.

전대 문헌을 수용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전대 문헌의 단순 전재, 일부 전재, 그리고 변개 전재가 그것이다. 단순 전재는 단순 필사가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인정기술 부분은 확대되고, 평 부분은 배제되고 있다. 이는 『기문총화』에서 필기류를 수용하는 양상 가운데 주류를 이룬다. 이를 통해 보면 『기문총화』 편자는 단순 전재를 하면서도 단순히 ‘베껴쓰기’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즐기면서 그에 따른 주변 정황에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대 문헌을 일부 전재하는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여러 개의 삽화 중에 일부만을 선택하는 경우와 편자의 의도와 부합하지 않거나 이야기 전개상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삭제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대부분 두 개의 삽화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후자는 다시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전대 문헌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누락하는 경우. 둘째, 편찬자의 의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대 문헌에 수록된 이야기가 길어질 때 이야기 전개상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생략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대 문헌을 변개 전재하는 양상이 있다. 이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변개라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앞의 두 전재 양상과는 그 층위가 다르기 때문에 변개 전재에 대해서도 일정한 논의 설정은 유의미한 것이다. 변개 전재의 경우 두 가지 양상이 보인다. 그 하나는 전대 문헌의 번거롭고 복잡한 부분을 刪削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경우이다. 적극적으로 개작의 양상을 보이고자 한 이야기는 <金應河 이야기> 뿐인데, 이 역시 편자의 능력의 한계로 실패하였다. 이러한 편자의 능력으로 인해 『기문총화』에서 개작의 양상으로써 전개한 이야기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어서 『기문총화』 1권에서 전대 문헌을 수용하는 사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두 가지 점에서 살펴 보았다. 그 양상의 하나는 편자의 갈래 인식이라는 점에서, 다른 하나는 유전 양상이라는 점에서 고찰할 수 있었다. 편자의 갈래 인식은 인정기술의 확대와 평 부분의 배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 후기는 이야기 문학의 발달에 따라 주변 부대 서술이 축약되거나 탈락된다. 그런데 『기문총화』에서의 인정기술 부분의 확대는 주변 부대 서술의 확대라는 점에서 조선 후기 이야기 문학의 발달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는 필기류를 수용할 때의 한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필기류를 수용할 때에는 破閑이라는 오락성 외에 지식을 과시하려는 의도 때문에 한 쪽에서는 주변 부대 서술이 확대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주변 부대 서술이 축약되거나 탈락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필기류를 수용할 때에는 발체의 대상이 되는 이야기를 가능한 한 그대로 보존하려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변개시키는 양상이 매우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살펴보았다. 그것은 개작을 하는 것보다 주어진 이야기를 새롭게 선별·재배열하는 것이 오히려 또다른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여졌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기문총화』의 전대 문헌 수용 양상에 대해서는 해결된 문제보다 남은 과제가 더 많음은 부인할 수는 없다. 먼저 『기문총화』 1권에서 161화에서 179화까지의 총 19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필자는 이 중 ‘적어도’ 몇 편은 『기문총화』 편자의 몫으로 돌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기문총화』 4권에 대해서도 정치하게 수용 양상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기문총화』 4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1권과 다르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문제가 다소라도 해결이 되면 필기류 수용 양상에서 보다 확대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즉 『기문총화』에서 전대 야담집을 수용하는 양상이 어떠한가, 후대 야담집으로 전이되는 양상은 또한 어떠한가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이들 과제는 필자의 과제일 뿐 아니라, 야담연구자의 일정한 과제이기도 하다.

Abstract

A Study on the Acceptidn of Former Ages' Literatures in the Kimunchongwha

Kim Joon-Hyeong

This paper aims to research the phase that Pilki and Peasul in volume one of Kimunchongwha accept the former ages' literatures. The first volume of Kimunchongwha composed 183 short stories. In 164 stories out of 183 stories in volume one came from the former ages' literatures. And the other 19 stories are presumed to be created by the author, especially long and critical ones.

The phase of acceptances a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which are rewriting, portion reproduction, and transferring reproduction. The rewriting signifies that the author moved into Kimunchongwha from the former ages' stories. As part, some the rewriting stories became specific and longer than the former ones, specially concerning the information of hero who are in stories. But the others became shorter than the former ones, specially the comments about the hero were deleted at all. The portion reproduction means that the stories were chosen as part or considerably deleted the part of stories, on purpose. This fact shows that the author want to partly change the former stories. The transferring reproduction rarely can see that case, if any, it is very passive.

I can give the brief explanation about the meaning of acceptance. First the author surely recognized the differences between Pilki and Yadam. The fact that the author deleted comments about the hero shows his recognition. Second he stick to the passive attitude toward changing the

former stories. This phenomenon can be explained by the rewriting and portion reproductions.